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9)

회고와 바람

아주대학교 김하진*

이 글을 쓰기에 몹시 망설였습니다. 자칫 잘못 쓰면 우리학회에 누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부질없는 자랑(?)이나 늘어놓을 것같아 정말 조심스럽지만 기획연재라 해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헤레를 바랍니다.

불민(不敏)한 본인이 우리 정보과학회의 제 10대 회장으로 미력하지만 뛰어다니던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이 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종상 회장님을 모시고 재무위원장과 이사로 학회사무국 매입을 위해 여러 관련 산업체들을 돌아다니던 일, 이철희 회장님을 모시고 부회장으로 학회일에 분주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무엇보다 구의동서 셋방살이 하던 우리학회가 여러면으로 서울의 요지인 방배동으로 입주하고 전임회장님들과 그래도 넉넉했던 회의실에서 자축 케익을 자르며 샴페인을 터트리던 일과 동판으로 된 현판을 달던 일은 우리학회 발전에 큰 이정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부회장 2년(1988.11~1990.12), 회장으로 2년(1991.1~1992.12), 연속 4년간 나름대로 우리학회를 위해 열심히 애쓰려했던 그때가 분수에 넘치게 부담스러웠으나 본인의 일생에 꼭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꼭 10년전 10월 23~24일에 제14회 정기총회 및 추계 발표회를 아주대학교에 초치하여 조직위원장으로 우리 회원들을 수원으로 모신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회 총무 김영찬 교수님 그리고 학술위원장 임인철 교수님의 도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발표장이 16개밖에 필요 없었는데 금년 제24회에는 47개 발표

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회장으로 일하던 1991년과 1992년의 네 번의 총회들과 학술발표회들을 잘 기억하려고 애쓰던 일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봄 경북대학교에서는 경북지역의 많은 회원님들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회를 드렸고 가을에 홍익대학교에서 높은 층을 오르내리던 일(엘리베이터는 있었지만)들, 1992년 봄 포항공과대학교에서의 제19회 임시총회와 학술 발표회는 먼거리를 마다않고 많이 참석해 주셨고, 가을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일들을 새삼 기억합니다. 이 모임들을 위해 같이 뛰었던 여러분들 특히 조직위원장 이상조 교수님, 원유현 교수님, 박찬모 교수님, 황종선 교수님 그리고 학술위원장 유석인 교수님, 황규영 교수님, 전주식 교수님, 조유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1990년 가을에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재단에 IOI(국제정보올림피아드)참가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원약속을 받고 사전자료 수집과 1991년 2월 20일~28일에 빠리의 UNESCO(IOI의 공식 후원기구)본부와 제3회 IOI 개최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된 IOI 이사회에 업저버로 참석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정보과학회가 주관하는 IOI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제1회 IOI는 1989년 5월에 불가리아 프라페즈에서, 제2회는 1990년 7월에 백러시아(그 당시는 소련) 민스크에서 개최되어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의 참가가 불가능하였고, 제3회 아테네 개최

*종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10대 회장

IOI부터는 참가가 가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3회 IOI(1992년 5월 19~24일)에는 대표학생 구성이 어려워서 단장, 부단장 등의 대표단만 업저버로 참가하여 IOI참가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참가는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가능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어 1월 13일~2월 1일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역사적인 제1기 겨울학교를 개교할 수 있었고 전국PC경진대회의 상위입상자 11명(고교생 3명, 중교생 8명)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과 4월의 통신교육을 거쳐 5월 10일에 처음으로 대표학생 4명을 선발하여 6주간의 주말교육을 홍릉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실시하여 7월 12~21일에 개최된 제4회 IOI(독일의 본)에 참가하여 금 1, 은 2, 동 1로 800점 만점에 728점을 획득하여 50개 참가국중에서 4위로 입상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대표학생으로 선발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계속하여 통신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3~14일에는 제1기 여름학교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교하였는데 과학고 교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포함하여 12명(고교생 9명, 중교생 3명)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통신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취도에 따라 선발된 학생과 전국PC경진대회 상위입상자 18명으로 다시 제2차 겨울학교를 개교하게 되었고, 이후 매년 이와 비슷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금년까지 5회에 걸쳐 IOI에 참가하여 왔습니다. 제5회 IOI(1993년 10월 16~25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서는 금 1, 은 1, 동 2로 800점 만점에 640점을 획득 46개 참가국중 6위로 입상하였으며 제6회 IOI(1994년 7월 3~10일, 스웨덴의 하님예)에서는 금 1, 은 1, 동 1로 800점 만점에 403점을 획득 50개 참가국중 9위로 입상하였고, 제7회 IOI(1995년 6월 26일~7월 3일, 네덜란드 아인트호번)에서는 은 1, 동 2로 1,000점 만점에 360점을 획득 54개국 참가국중 17위로 다소 저조한 결과로 입상하였으며 작년의 제8회 IOI(1996년 7월 23~8월 1일, 헝가리의 베스프렘)에서는 금 1, 은 1, 동 2로 800점 만점에 564점을 획득 57개국 참가국중에서 8위로 입

상한 바 있고 금년은 제9회 IOI(1997년 11월 30일~12월 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참가를 위해 주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10회 IOI(1998년 7월, 폴투갈의 에스토리) 참가준비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중입니다. 위와 같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고 믿어 더욱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 IOI 참가 사업은 정보영재의 조기 발견과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바른 논리에 바탕을 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인재들을 길러 내는데 그 목표와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 5회의 IOI에 참가하였던 학생들은 15명으로 고교 재학생이 4명 한국과학기술원에 6명, 서울대에 3명, 연세대 1명, 고려대 1명으로 11명이 모두 컴퓨터 관련 학과에 재학생으로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반드시 유능한 일꾼들이 나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IOI 참가사업과 영재교육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 컴퓨터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가져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학술사업으로 애써 본 것은 전임 이철희 회장님이 시작하신 것으로 KISS-KOCSEA(한국정보과학회와 재미한국인 컴퓨터과학자협회) Joint Workshop이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해외의 최첨단 정보관련 분야에서 연구 개발하는 교포학자들을 초빙하여 연구결과와 기술을 국내업체에 전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일차고 격조높은 Workshop을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박찬모 교수님의 수고가 큰 몫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학회에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안정 재정기반 구축이었습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노고로 학회 사무국과 회의실 그리고 서고를 갖추었으나 보다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용역사업의 확대를 위해 정보수집부터 제안서 제출까지 두려움 아끼지 않았으며 산업체 지원금 증대를 위해 여러 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특히 재정을 맡으셨던 김용서 사장님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우리학회는 여러면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학회사무국도 배로 넓어졌고 논문지와 학회지의 발간에서 그 양과 질을 볼 때 정말 자축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봄·가을 학술발표회때 발표되는 논문 수의 급증 그리고 일만명에 육박하는 등록회원, 5,000명에 가까운 재적회원, 2,000명의 논문 구독회원 등 이 모두는 우리학회의 앞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학회는 반드시 국내의 우수학회는 물론 세계적인 학회로 그 위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심스럽게 한마디 첨언할 것은 1993년 4월에 우리학회 학술상의 부상기금으로 겨자씨 하나를 우리 모두에게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동참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 모두의 자량과 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에 우리 모두의 동참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97 동계 데이터베이스 학술대회 ●

- 일 자 : 1998년 2월 12(목)~13일(금)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주 최 : 데이터베이스연구회
- 논문마감일 : 1997년 12월 22일(월)
- 논문제출처 :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강현철 교수
Tel. 02-820-5306 Fax. 02-820-5301
- 문 의 처 : 충북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류근호 교수
Tel. 0431-61-2254, email : khryu@dbl-lab.chungbuk.ac.kr